

〈옥면비염불서승〉에 나타난 통과의례와 공간 역학 연구

박성호*

수평·수직·방사적 운동의 궤적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삼국유사』의 〈옥면비염불서승〉을 빅터 터너의 ‘통과의례’ 이론과 ‘공간 역학(수평-수직-방사)’의 관점을 결합해 분석했다. 본고는 이 작품이 단순한 왕생담을 넘어, 억압적 질서를 벗어나 초월에 이르는 과정을 3단계 공간 운동으로 형상화한 서사임에 주목했다. 2장에서는 첫 단계인 ‘분리’를 세속적 이탈과 수평적 운동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옥면은 억압적 공간인 귀진가와 성역인 미타사를 왕복하고, 마당에서 두 손을 묶고 좌우로 흔드는[左右遊之] 수행을 실천한다. 이러한 왕복과 진동은 윤회의 닫힌 궤도를 뚫는 수평적 운동인 동시에,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분리의 지향을 드러낸다. 3장에서는 ‘전이’ 단계의 수직적 돌파와 반구조의 절정을 다루었다. 예토와 정토의 경계인 미타사 중정에서 옥면은 수직축인 장궤(長軌)를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는 상징적 죽음의 고행을 감행해 신본적 자아를 무화시킨다. 마침내 천상의 호명을 받고 법당 지붕을 뚫고 솟구치는[湧透屋樑] 수직적 비상은 세속의 위계와 한계를 파괴하는 통과의례의 클라이맥스이다. 4장에서는 ‘재통합’을 초월적 질서로의 편입과 승화의 실재적 증거 차원에서 살폈다. 진신을 얻은 옥면이 뿜어내는 “방대광명”과 끊임없는 하늘의 음악[樂聲不撤]은 빛과 소리의 방사적(放射的) 확산 운동이다. 또한 버려진 육신과 뚫린 지붕 구멍이라는 물리적 흔적은 그녀의 초월이 지상에 남긴 징표로, 비록 옥면이 지상으로 귀환하지 않더라도 흔적을 통해 대중과 감응하는 독창적 재통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옥면비염불서승〉은 인류학적 통과의례의 구조를 수평·수직·방사라는 3차원적 공간 역학으로 구현해 낸 독보적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재해석하여, 단순한 신이담을 넘어선 주제적 초월의 공간 서사임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옥면비염불서승, 삼국유사, 통과의례, 빅터 터너, 전이(Liminality), 반구조(Anti-structure), 공간 역학, 수직 운동, 수평 운동, 방사형 운동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강사

1. 서론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감통」(感通) 편에 수록된 〈옥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은 신라 경덕왕 대를 배경으로, 강주(康州)의 노비 옥면이 주인의 탄압 속에서도 지극한 염불 수행을 통해 육신을 버리고 서방정토(西方淨土)에 왕생(往生)했다는 기록이다. 이 서사는 비천한 계층의 여성이 극한의 고행을 뚫고 성불(成佛)한다는 극적인 플롯을 지니고 있어, 일찍부터 국문학과 불교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여성 성불의 가능성¹이나 정토신앙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거나,² 옥면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추적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³ 향전(鄉傳)과 승전(僧傳)의 중층적 구성에 주목하여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와 서사 구조를 규명하려는 문헌학적 논의도 있었다.⁴ 또한 작품의 난해한 구절인 “左右遊之激勵焉”의 해석을 둘러

- 1 여성 성불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옥면비염불서승〉을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玉善(1998),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哲學研究』 68호, 대한철학회; 이현옥(2003), 「여성성불의 근거와 그 의미」, 『불교학보』 40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이현주(2017),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6호, 한국역사연구회; 조경철(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호, 한국역사연구회; 김영미(2003), 「高麗 眞覺國師 惠諶의 女性成佛論」, 『梨花史學研究』 30호, 이화사학연구소; 구자상(2017), 「『삼국유사』 소재 여성주체설화의 수록배경 논구」, 『동아시아불교문화』 31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2 김춘호(2022), 「신라 정토신앙의 현신왕생설 재검토: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광덕염장」·「포천산오비구」를 중심으로」, 『韓國佛敎學』 101호, 한국불교학회; 남태순(2009), 「淨土經典의 往生思想과 鄉歌에 나타난 彌陀信仰 연구」, 『정토학연구』 12호, 한국정토학회.
- 3 신종원(2009),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한국전통문화연구』 7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4 정환국(2006), 「『삼국유사』의 인용자료와 이야기의 중층성: 초기 서사의 구축형태에 주목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3호, 동양한문학회; 이지환(2020),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상보적 서술 양상에 대한 전체론적 해석」, 『한국고전연구』 51호, 한국고전연구학회 등이 있다. 정환국의 연구가 『삼국유사』의 인용자료와 이야기의 중층성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지환은 향전(鄉傳)과 승전(僧傳)의 관계를 상보적이라고

러싼 논쟁 역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⁵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사 내부에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는 육면의 물리적 궤적과 의례적 폭발력을 구조적으로 해명하는 데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즉 귀진의 집[貴珍家]과 주의 경계[於州境]에 창건된 미타사(彌陀寺)의 마당[中庭]을 거쳐 법당(法堂)에 진입하고, 마침내 대들보를 뚫고[湧透屋樑] 솟구쳐 오르는 공간의 이동과 신체 훼손의 역동성이 지니는 서사적 의미가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노비가 부처가 되었다’는 기적담에 머물지 않는다. 육면이 귀진가(貴珍家)와 미타사를 오가는 행위, 두 손바닥을 뚫고 좌우로 요동하는 고행, 그리고 마침내 법당의 대들보를 뚫고 솟구쳐 오르는 파격적인 장면들은, 노비라는 신분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통과의례’(Rites of passage)의 과정을 기하학적인 공간 운동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육면비염불서승〉을 단순한 불교 설화가 아닌, 노비라는 신분 정체성을 해체하고 초월적 차원으로 도약하는 역동적 공간 서사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류학의 통과 의례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육면의 초월 과정이 어떻게 수평, 수직, 방사(放射)라는 3단계의 차원적 공간 역학⁶으로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는지 그 서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

보고 ‘육면’의 성불 과정과 수행 결과의 의미를 보다 심화되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

5 조동일(1991),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재판)』, 집문당; 진경환(2018), 『『삼국유사三國遺事』 「감통感應」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 번역의 문제』, 『한국전통문화연구』 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등.

6 본고에서 ‘공간 이동’ 대신 ‘공간 역학(力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육면비염불서승〉의 서사가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의 방향성과 구조적 원리를 통해 조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육면의 이동은 귀진가와 미타사를 왕복하는 수평적 운동, 장궤의 수립과 지붕 파열을 통한 수직적 운동, 그리고 “방대광명(放大光明)과 악성불철공중(樂聲不徹空中)”으로 표상되는 방사적 확산으로 전개된다. 본고는 이러한 운동의 궤적이 통과 의례의 분리·전이·재통합 과정과 긴밀하게 대응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옥면비염불서승>의 텍스트가 지닌 공간적·신체적 역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반 제넵(A. van Gennep)이 제창하고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심화시킨 ‘통과의례’ 이론을 핵심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반 제넵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모든 의례가 분리(Separation) - 한계상황(margin) - 재통합(aggregation)이라는 보편적인 3단계⁷ 구조를 지닌다고 통찰하였다. 이후 빅터 터너는 이 중간 단계를 라틴어 ‘Limen’(문턱)의 의미를 살려 ‘전이’(Liminality, 문지방성)라는 개념으로 심화시켰다. 본고는 터너의 역동적인 이론 확장을 수용하므로, 이하 본문에서는 이 중간 단계를 ‘전이’(Liminality)로 통일하여 명명하기로 한다.

터너는 이 전이의 단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양식의 대립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간 사회의 두 가지 형태를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인간의 상호관계의 두 가지 주요한 “양식”, 즉 병렬적인 상호관계와 양자택일의 상호관계가 있는 듯하다. 전자는 인간을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으로 구별하는 많은 평가방법을 가지는 정치-법률-경제적인 지위의 구조화되고 분화된, 그리고 자주 계급적인 구조로서의 사회 양식이다. 후자는 의례의 전환기에 인식되는 것으로, 의례 집례자들의 일반적인 권리에 복종하는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되는, 미조직 내지 조직이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분화된 단체(comitatus)나, 공동체(communitas), 혹은 동료집단(communion)으로서의 사회양식이다. 나는 사회관계에서 이 양식을 “공동생활의 영역”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공동체”(communitas)라는 단어보다 라틴어의 탈구조 공동체(communitas)를 사용하기로 하겠다.⁸

한다고 보고, 그 공간적 조직 원리를 ‘공간 역학’이라 명명하였다.

7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의례의 과정』,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 145.

8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47.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터너는 신분과 계급으로 인간을 구별하고 억압하는 세속의 일상적 상태를 ‘구조’(Structure)로 파악했다. 반면, 의례의 전환기(전이)에 이러한 위계적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인간의 본질적이고 평등한 연대감을 확인하는 상태를 ‘탈구조 공동체’(Communitas)로 명명하였다. 나아가 터너는 “구조는 이항 대립에 근거한다. [...] 그러나 반구조는 모든 이항적·계열적·점진적 구분과 차별을 폐기한다.”⁹라고 명시하며, “구조는 인간의 거리와 분절성에 의존하는 반면, 전이적 공간은 반구조적 비전과 사상, 행위를 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¹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는 터너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견고한 세속적 질서(구조)를 파괴하거나 멈춰 세우는 물리적·상징적 행위를 지칭할 때는 ‘반구조’(Anti-stru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본고는 터너의 통과의례 3단계(분리-전이-재통합)가 〈육면비염불서승〉 내에서 수평, 수직, 방사(放射)라는 3차원적 ‘공간 역학’과 조응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고에서 ‘공간 이동’ 대신 ‘공간 역학’이라 명명한 까닭은, 본 서사가 장소의 평면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억압적 구조와 반구조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물리적 방향성과 조직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구 인류학의 도식을 불교적 초월 서사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개념적 긴장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재통합’ 단계를 의례 주체의 세속 사회 귀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터너는 초월을 지향하는 종교적 통과의례, 특히 장례 의례에 대하여 “수련자가 하늘나라나 열반처럼, 존재의 보다 높은 차원이나 단계로 회귀하는 것의 준비”¹¹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육면이 지상으로 귀환하지 않고 육신을 버린 채[捐骸] 정토(淨土)에 편입되는 서사는 이론적 도식의 일탈이 아니다.

9 빅터 터너, 강대훈 옮김(2018),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 서울: 황소걸음, p. 368.

10 빅터 터너, 강대훈 옮김(2018), p. 375.

11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278.

이는 오히려 낡은 세속의 구조를 파괴하고 가장 확고한 우주적 질서에 안착하는 종교적 ‘재통합’의 완벽한 성취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터너의 이론을 기계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육면의 초월 과정이 어떻게 3단계의 차원적 공간 역학으로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는지 그 서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명할 것이다. 첫째, ‘분리’의 단계는 수평적 운동을 통해 분석한다. 육면이 억압적 귀진가와 미타사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 그리고 마당에서 좌우로 요동하는 행위는 윤회의 닫힌 궤도를 맴도는 수평적 운동이자, 분리를 향한 예비적 몸부림이다. 둘째, ‘전이’의 단계는 수직적 운동과 반구조의 실현으로 고찰한다. 경계 공간에 수직의 축을 세우고 손바닥을 관통하는 육면의 신체 훼손부터, 법당 지붕을 산산조각 내며 하늘로 솟구치는 수직적 비상은 억압적 구조를 파괴하는 전이의 클라이맥스이다. 셋째, ‘재통합’의 단계는 방사적 운동과 그 실재적 흔적을 통해 분석한다. 빛과 음악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현상과 지상에 남겨진 육신, 뚫린 구멍 자리를 통해, 육면의 초월이 개인의 내면적 해탈로 증발하지 않고 지상의 세계에 그 실재성을 방사하는 독창적인 재통합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2. 분리(Separation): 귀진가(貴珍家)로부터의 분리와 수평적 운동

2.1. 텍스트의 중층성과 향전(鄉傳)의 공간어(語) 재고(再考)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의 범위와 번역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권5 〈육면비염불서승〉은 향전(鄉傳)과 승전(僧傳)의 두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일연의 찬(讚)이 덧붙여 있다. 선행연구에

서도 언급했듯이, 향전과 승전 모두 노비인 육면이 지극한 정진 끝에 진신(眞身)으로 화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서사적 성격은 상이하다. 향전의 기록은 비록 간결하나 주인의 방해와 이를 극복하는 육면의 고행, 그리고 대들보를 뚫고 광명세계로 승천하는 환상적 묘사 등 선명한 서사적 골격을 갖추고 있다. 반면 승전의 기록은 사실 적시의 성격이 강하여 상세하지만 서사적 짜임새는 부족한 편이다.¹²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불교적 사유와 공간적 상상력이 응축된 향전의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향전 번역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경덕왕대에 강주의 신도 수십 인이 극락으로 가고자 주 경계에[於州境] 미타사를 세우고 만 일 동안 결계를 했다. 이때에 아간 귀진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어 이름이 육면이었다. 그의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 복판에 서서[立中庭] 스님을 따라 염불을 하였더니 주인이 그가 제 직분을 모르는 것을 미워하여 매일 곡식 두 섬씩을 주고 하루 저녁에 다 쥘으라고 하였다. 여종은 초저녁에 이것을 다 쥘어 버리고 절로 와서 염불을 하였다. 밤낮 게을리하지 않으며, 마당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 말뚝 위에 매어 합장을 하고 양쪽에서 이를 흔들며 격려하였다. 이때에 하늘에서 육면낭자는 당에 들어와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절의 대중들이 이 말을 듣고 여종을 당으로 들어오게 권하여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정진케 하였다[隨例精進]. 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이 서쪽으로부터 들려 오면서 계집종이 집 대들보를 뚫고 솟아 나와 서쪽 교외로 나가 해골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해 나타났다. 연화대에 앉아 대광명을 내며 천천히 떠나 가니 음악 소리가 공중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당에는 지금도 뚫어진 구멍 자리가 있다고 한다.¹³

12 정환국(2006), p. 138.

위 번역에서 본고는 특히 세 가지 기표의 객관적 의미와 그 공간적 속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어주경”(於州境)이다. ‘경’(境)은 본래 행정 구역의 끝을 의미하는 물리적 테두리이다. 강주(康州)라는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구역의 끝자락(경계)에 미타사가 건립되었다는 것은, 이 사찰이 속세(강주 중심부)와 철저히 분리된 변방이자 성속(聖俗)이 교차하는 지리적 문지방에 위치했음을 객관적으로 지시한다.

둘째, “입중정”(立中庭)을 “마당 복판에 서서”로 번역하였다. 본고가 이 구절에 주목한 것은 옥면의 주체적 의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텍스트는 굳이 ‘가운데’[中]라는 명확한 위치성과 ‘서다’[立]라는 주체적 동사를 결합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옥면이 주인을 따라 마당 한구석에 수동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교적 의지를 품고 절이라는 성역으로 진입하는 전이 공간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당당히 섰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표이다. 즉, 이 번역은 옥면을 공간의 주변부로 밀려난 피동적 노비가 아니라, 통과의례를 스스로 집행하는 능동적 주체로 조명하기 위한 문헌학적 선택이다.

셋째, “수예정진”(隨例精進)의 제도적 의미이다. “隨例精進”은 위의 번역처럼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정진하였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예에 따라 정진하게 했다”¹⁴나 “예에 따라 정진토록 했다.”¹⁵와 같은 번역, 즉

13 景德王代康州善士數十人, 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瑯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 隨僧念佛, 主憎其不職, 每給穀二碩, 一夕春之. 婢一更春畢, 歸寺念佛. 日夕微怠, 庭之左右, 豎立長櫬, 以繩穿貫兩掌, 繫於櫬上合掌, 左右遊之激勵焉. 時有天唱於空「郁面娘入堂念佛」, 寺衆聞之, 勸婢入堂, 隨例精進. 未幾, 天樂從西來, 婢湧透屋樑而出, 西行至郊外, 捐骸變現真身. 坐蓮臺, 放大光明 緩緩而逝, 樂聲不撤空中. 其堂至今有透穴處云. 번역과 원문은 하정룡(2003), 『(교감역주) 삼국유사: 원본의 복원을 위한 삼국유사전』, 시공사, pp. 607-608을 따랐다. 지면의 제약으로 강주 지명에 대한 일연의 주석과 속담에 관한 주석은 생략하였다.

14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1997), 『삼국유사2』, 숲, p. 233; 일연 지음, 최광식·박대재 역주(2014), 『삼국유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p. 631.

15 일연 지음, 이범교 옮김(2005), 『三國遺事의 綜合的 解釋(下)』, 민족사, p. 428.

‘예’(例)가 가진 ‘법식’(法式)이나 ‘선례’(先例) 혹은 ‘관례’(慣例)라는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 더 정밀한 번역이라 판단하였다. 이는 옥면의 범당 진입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일정한 수행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사건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본 작품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구절 가운데 하나는 “婢—更春畢 歸寺念佛 日夕微愈 庭之左右 豎立長檣 以繩穿貫兩掌 繫於檣上 合掌 左右遊之 激勵焉.” 부분이다. 이 구절을 둘러싸고 일부 연구자들은 현실적 개연성을 근거로 옥면 외의 다른 인물이 행위의 주체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손바닥을 노끈으로 꿰서 묶었는데 어찌서 그럴 수 있었겠는가”¹⁶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이 문장에는 동사가 무려 5개가 연이어 나온다. “세우고”[豎立], “뚫고 꿰어”[穿貫], “매어”[繫], “합장하면서”[合掌], “격려했다”[激勵]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¹⁷와 같은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기존의 다수 번역 및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행위 주체를 모두 옥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비일경용필”(婢—更春畢) 이후 별도의 주어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문법적으로 옥면을 지속적인 행위 주체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더욱이 본 작품은 노비라는 가장 낮은 신분의 존재가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초월에 이르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따라서 옥면의 주체적 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법적 판단을 넘어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본고가 주목하는 수평적 운동과 수직적 운동의 방향성 역시 옥면의 능동적 수행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하나의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말뚝을 세우고, 손바닥을 꿰고, 좌우로 움직이며, 마침내 지붕을 뚫고 솟아 오르는 일련의 운동은 외부에 의해 강제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16 조동일(1991), p. 252.

17 진경환(2018), p. 300.

수행의 과정으로 읽힐 때 가장 높은 서사적 일관성을 획득한다.

본고는 이처럼 당대의 물리적·제도적 맥락이 투영된 공간어의 의미와 향전의 주체적 서사 골격을 바탕으로, 옥면의 공간 역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2.2. 귀진가(貴珍家)와 노비 신분: 닫힌 윤회의 공간과 세속적 억압

통과의례의 첫 번째 단계인 ‘분리’는 주체가 기존에 속해 있던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조건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이다. 빅터 터너에 따르면 “분리 단계에는 사회구조 속에 정해지기 이전의 상태나 일정한 문화적인 조건(“어떤 상태”)으로부터의 혹은 그 양자로부터의 개인 내지 집단의 분리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 행동이 있다.”¹⁸라고 하여, 분리 단계를 새로운 존재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옥면비염불서승〉의 통과례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면이 어떠한 질서 속에 속박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면비염불서승〉에서 이 분리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은 옥면의 주인이 머무는 귀진가(貴珍家)이다. 귀진가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신라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가 작동하는 억압적 ‘구조’, 즉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정치, 법률, 경제적인 지위가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양식의 중심지이다. 옥면은 이 견고한 구조의 가장 밑바닥인 노비의 신분에 묶여 있으며, 곡식을 짓는 고된 노동을 통해 세속적 질서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옥면의 주인인 귀진은 그녀가 불교적 수행에 몰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매일 곡식 두 섬을 짓게 하는 형벌적 노동을 부과한다. 이는 세속의 구조가 초월적 지향을 가진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귀진가는 옥면의 신체를 노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녀를 세속적 위계의 최하단에 가두어 두려는 억압의 공간이다.

18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45.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극단적인 억압이 곧 통과 의례를 촉발하는 출발 조건이 된다. 빅터 터너는 기존 질서가 견고할수록 통과 의례는 더욱 극적인 신분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¹⁹ 즉, 귀진가의 노비제라는 세속적 구조가 폭력적이고 견고할수록, 그곳을 탈출하여 초월에 이르려는 옥면의 의례적 비상(飛上) 역시 극적인 파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옥면의 육체는 여전히 귀진가라는 억압적 구조에 속해 있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차 세속의 굴레를 거부하며 다른 차원의 초월적 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분리는 물리적 단절 이전에, 이처럼 육체적 구속과 의식적 지향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배태된다.

2.3. 미타사(彌陀寺) 왕복과 “좌우유지”(左右遊之):

분리를 향한 지향과 반복 운동

옥면은 귀진가에서 부과된 고된 노동을 끝마치고, 매일 밤 미타사로 향한다[日夕微怠]. 귀진가가 억압의 구조를 대변한다면, 미타사는 정토를 지향하는 성역이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이다. 옥면이 이 두 공간을 끊임없이 오가는 행위는 세속적 질서로부터 자신을 물리적·정신적으로 분리해 내고자 하는 치열한 실천이다.

그러나 공간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귀진가와 미타사를 오가는 옥면의 궤적은 지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평적 운동’에 머물러 있다. 그녀는 매일 밤 미타사로 향하지만 동이 트면 다시 귀진가로 돌아와 노비의 노동을 감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귀진가와 미타사를 잇는 길은 해탈을 향한 직선적 여정이라기보다 동일한 궤도를 반복하는 원환적 운동에 가깝다. 그리고 윤회가 “달한 계 안에서 끝없이 순환한다는 특성”²⁰을 고려한다면, 귀진가와

19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259 참조.

20 윤재웅(2018), 「서정주 문학에 나타나는 생태 에너지 순환과 윤회전생 사유의 유사성에 대한 고찰」, 『문학과 환경』 17호, 문학과환경학회, p. 155.

미타사 사이에서의 왕복은 윤희의 공간적 형상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진가는 단순한 가옥이 아니라 윤희의 질서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노비라는 신분 역시 하나의 사회적 업보처럼 작용하며, 옥면은 그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완전한 초월에 이르지 못한 주체의 한계가 공간의 이동 궤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운동과 그 존재론적 한계는 미타사 마당에서 보여준 “좌우유지”(左右遊之)의 행위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된다. 선행 연구는 이를 대개 “정성이 가륵하면 뜻을 이룰 수 있고, 불법을 닦고자 한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²¹이라고 하여, 극단적 수행 의지나 고행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고는 여기에 나타나는 운동의 방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옥면은 마당 복판에 서서 두 손바닥을 뚫어 새끼줄로 쥔 뒤, 합장한 채로 좌우로 흔든다.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위로 상승하지 못한 채, 동일한 평면 위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수평 운동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는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몸부림인 동시에, 아직 중력과 세속의 질서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미완의 분리 상태를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귀진가와 미타사를 왕복하는 궤적과 마당에서의 횡적 진동은 세속적 구조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려는 옥면의 주체적 의지를 보여준다. 옥체는 여전히 귀진가라는 세속적 공간과 수평의 반복 운동에 묶여 있으나, 그녀는 좌우의 격렬한 요동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의 도약을 예비하고 있다. 분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수평적 궤도 위에서 서서히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21 조동일(1991), p. 252.

3. 전이(Liminality): 경계 공간의 반구조(Anti-structure)와 수직적 돌파

3.1. 중정(中庭)의 공간성과 장궤(長槩)의 수립(豎立): 경계 공간(Limen)의 구축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육면은 귀진가와 미타사를 반복적으로 왕복하며 세속적 질서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 이동만으로는 아직 완전한 초월이 실현되지 않는다. 빅터 터너의 통과 의례 이론에 따르면 분리 이후에는 기존의 사회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기 이전의 중간 단계, 즉 문지방성(Liminality)의 국면이 뒤따른다. 터너는 이 단계를 “전이기”(liminal period)로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이기(liminal period)에서는 의례적 주체(‘지나가는 자’(passenger) ‘리멘을 넘는 자’(liminar))의 상태가 모호해진다. 그는 분류 가능한 어떤 고정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 존재가 된다. 그 상태에서 과거에 가졌거나, 미래에 가질 어떤 속성과도 무관한 상징적 영역을 통과하는 것이다.²²

터너의 설명처럼 전이기의 존재는 더 이상 이전의 정체성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경계 위에 머문다. 따라서 리미널리티의 본질은 모호성과 중간성에 있으며, 이러한 존재론적 특성은 특정한 공간적 형식을 통해 구현된다.

〈육면비염불서승〉에서 이러한 리미널리티가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되는 장소, 곧 의례 주체자의 “이도 저도 아닌” 특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미타사의 마당[中庭]이다. 미타사의 마당은 단순한 수행 장

22 빅터 터너, 강대훈 옮김(2018), p. 298.

소가 아니라 세속과 성역, 예토와 정토, 노비와 진신(眞身) 사이에 위치한 전이 공간으로 기능하며, 옥면의 존재론적 변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지방의 장(場)을 형성한다.

작품은 옥면이 “마당 복판에 서서”[立中庭] 염불하였다고 기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마당’이 아니라 ‘중정’(中庭)이라는 공간적 중심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미타사 자체가 “주의 경계”[於州境]에 위치한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경계성을 강화한다. 주경(州境)이 일상적인 행정 구역의 끝을 가르는 ‘거시적인 경계’라면, 중정은 성역 진입 직전에 마주하는 ‘미시적인 경계’이다. 다시 말해 <옥면비염불서승>은 ‘경계(주경) 속에 또 다른 경계(중정)’를 겹쳐 놓은 이중의 공간 구조를 설정한 것이다. 의례의 주체인 옥면을 이처럼 첩저한 경계의 한복판에 밀어 넣음으로써, 작품은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기 직전의 전이적(Liminal)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정은 이 작품 전체에서 리미널리티의 에너지가 가장 밀도 높게 집약된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중정에 선 옥면은 더 이상 귀진가의 노비라는 사회적 범주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아직 정토의 존재로 편입된 것도 아니다. 즉 그녀는 기존 신분 질서의 분류 체계 바깥에 위치한 리미널 존재가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정은 구조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새로운 존재 가능성이 열리는 반구조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옥면은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실제로 작품에서 가장 극단적인 수행 역시 모두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옥면은 중정의 좌우에 “긴 막대를 곧게 세우고” 그 사이에 자신의 두 손바닥을 꿰어 매단 채 염불을 계속한다. 이를 극단적 고행 수행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장렬의 수립은 단순한 수행도구의 설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품에서 나타난 운동이 모두 수평적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귀진가와 미타사 사이의 왕복과 “좌우유지”로 표상되는 횡적 진동은 평면 위에서 반복되는 수평적 운동

이었다. 반면 긴 막대는 땅에 박혀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오른다. 따라서 ‘곧게 세우는’[豎立] 행위는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운동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윤희의 원환적 구조를 맴돌던 수평적 운동이 이 순간부터 초월을 향한 수직적 운동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궤는 인간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수직축(axis)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장궤가 지면과 천상을 연결하는 수직적 매개물이라는 점은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말한 세계의 축(axis mundi) 개념과도 연결된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정에 세워진 장궤는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예토와 정토, 인간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축으로 기능한다. 만약 중정이 세속과 성역의 경계 공간이라면, 장궤는 그 경계 공간 내부에 수직적 초월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장궤의 수립은 단순한 수행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 질서의 창출이며, 수평적 순환이 지배하던 세계가 수직적 상승의 세계로 전환되는 결정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궤의 수립은 리미널 공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중정이 세속적 구조와 초월적 질서 사이의 문지방이라면, 장궤는 그 문지방 위에 세워진 초월의 축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육면은 자신의 신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기존 정체성을 해체하게 된다. 이후 전개되는 신체 훼손과 법당 돌과의 과정은 이러한 리미널 공간 위에서 실현되는 반구조적 변형의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3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축(axis mundi)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성스러운 장소는 공간의 균질성의 단절을 가져온다. ② 이 단절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하계로) 하나의 우주 영역에서 다른 우주 영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출구를 상징한다. ③ 천상의 교류는 기둥(우주 기둥: universalis columna), 사다리(야곱의 사다리), 산, 나무, 넝쿨 등 여러 형상으로 상징되는데 그것은 모두 우주의 축과 관계한다. ④ 이 우주 축의 주위에는 ‘세계’(=우리의 세계)가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축은 중앙에, 즉 ‘대지의 배꼽’에 있으며, 그것은 대지의 중심이 된다. M. 엘리아데 지음, 이은봉 옮김(2008), 『성과 속』, 한길사, pp. 62-63.

3.2. 신체의 무화(無化)와 상징적 죽음: 극한의 고행이 지니는 의례적 역학

빅터 터너는 “전이 현상은 자주 죽음이나 자궁 속에 있는 것, 불가시적인 것, 암흑, 남녀양성애, 광야 그리고 일식이나 월식”²⁴ 등에 비유된다고 하였다. 이는 리미널 존재가 기존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일종의 상징적 죽음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옥면비염불서승〉에서 중정을 무대로 전개되는 옥면의 고행은 단순한 종교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기존 존재를 해체하기 위한 의례적 죽음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행위는 장궤 사이에 자신의 두 손바닥을 꿰어 매단 채 염불을 지속하는 장면이다. 손은 노비인 옥면이 고된 노동(곡식 찧기)을 수행하며 세속적 질서에 복무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이자 신분적 표지이다. 따라서 스스로 손바닥을 관통시키는 행위는, 노비라는 정체성을 지탱하던 신체의 사회적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초월을 위한 종교적 매개체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신체 무화(無化) 작업이다.

이러한 신체 훼손이 중정이라는 리미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중정은 이미 세속적 구조와 초월적 질서가 교차하는 문지방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바닥 관통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문지방 위에서 수행되는 상징적 죽음의 의례라 할 수 있다. 옥면은 이 공간에서 더 이상 귀진가의 노비도 아니고 아직 정토의 존재도 아닌 상태에 머문다. 그녀는 삶과 죽음, 인간과 성인, 예토와 정토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리미널 존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좌우유지”의 운동은 이러한 상태를 더욱 극적으로 드러낸다. 분리 단계에서 좌우 운동이 귀진가와 미타사 사이를 맴도는 수평적 반복의 형상이었다면, 전이 단계에서는 기존 정체성이 붕괴되는 진

24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46.

동의 형상으로 읽을 수 있다. 옥면의 신체는 더 이상 안정된 사회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녀는 기존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반복한다.

결국 장궤의 수립과 손바닥 관통, 그리고 좌우의 진동은 모두 기존 존재의 죽음을 수행하는 의례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신체의 무화 과정을 통해 옥면은 노비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초월적 존재로 재탄생하기 위한 전이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3.3. 법당 진입과 지붕 파열[湧透屋樑]: 반구조적 비상과 초월의 임계점 돌파

3.2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정에서 이루어진 장궤의 수립과 신체 훼손은 옥면을 기존의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의례적 죽음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전이 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기존 질서의 해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리미널 존재는 기존 정체성을 상실한 뒤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에 놓이며, 이러한 전이 과정은 새로운 존재 가능성이 승인되는 순간 절정에 이른다. 〈옥면비염불서승〉에서 그러한 전환의 계기는 하늘에서 들려온 호명, 즉 “하늘에서 옥면낭자는 당(堂)에 들어와 염불하라”라는 소리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적 현현이 아니라 초월적 질서가 옥면을 공식적으로 호명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⁵ 지금까지 옥면은 노비라는 세속적 정체성을 벗어났지만 아직 새로운 존재로 확정되지 않은 리미널 존재였다. 따라서 이 음성은 옥면을 법당으로 불러들이는 초월적 호명인 동시에, 그녀의 수행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승인하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의 대중들이 이 말을 듣고 여종을 당으로 들어오게

25 빅터 터너가 분석한 여러 통과의례에서도 리미널 상태를 거친 의례 주체가 새로운 지위로 편입되기 직전 공동체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타난다.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251 참조.

권하여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정진케 하였다”라는 권유 역시 이러한 승인이 공동체 차원에서 재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옥면이 새로운 존재 질서로 편입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상징적 인정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징적 인정과 함께 옥면은 경계인 중정을 떠나 법당으로 진입한다. 만약 중정이 세속과 성역 사이의 문지방이었다면, 법당은 초월의 질서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중심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옥면의 법당 진입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경계 공간에서 성역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의례적 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옥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집의 대들보를 뚫고 나온다. 이 장면은 〈옥면비염불서승〉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공간적 전환이 발생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작품의 운동은 귀진가와 미타사를 오가는 왕복 운동이나 “좌우유지”로 상징되는 수평적 운동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붕 돌파는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직 운동이다. 더욱이 그것은 장결을 곧게 세우는 정도의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구조의 파열을 동반한다. 지붕은 건축물의 최종 경계이자 인간 세계와 하늘을 구분하는 물리적 한계선이다. 동시에 그것은 내부와 외부, 성역과 천상, 인간과 초월을 구획하는 구조적 경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옥면이 지붕을 뚫고 상승하는 행위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인간계를 규정하던 경계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붕 파열은 터너가 말한 반구조의 극적인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터너에 따르면 리미널리티의 공간에서는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질서 속에 있는 여러 집단을 식별하는 모든 속성이 정지상태”²⁶에 놓인다. 즉 리미널리티는 기존 구조의 규정력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반구조의 국면

26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57. 또한 리미널 존재는 기존의 “분류의 관계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형될 가능성을 획득한다.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45 참조.

이며, 바로 그 틈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육면 역시 더 이상 귀진가의 노비가 아니며,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정토의 존재가 된 것도 아니다. 그녀는 기존 질서의 분류 체계 바깥에 위치한 리미널 존재로서, 구조와 구조 사이의 틈에 서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 세계의 경계를 상징하는 지붕을 돌파함으로써 세속적 질서의 한계를 초월한다. 따라서 지붕 파열은 단순한 물리적 비상이 아니라 기존 사회구조와 존재론적 경계를 넘어서는 반구조적 돌파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작품은 육면이 “해골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해 나타났다.”라고 서술한다. 이 서술은 존재론적 전환이 이미 지붕 돌파의 순간에 이루어졌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육체의 포기는 그 결과일 뿐이며, 실질적인 변형은 경계를 파열하고 상승하는 순간 이미 완결된 것이다.

결국 범당 진입과 지붕 파열은 〈육면비염불서승〉의 전이 단계가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다. 이는 분리 단계의 수평적 운동이 수직적 비상으로 전환되어 세속의 구조를 돌파하는 결정적 임계점이며, 이후 전개될 빛과 소리의 방사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육면은 통과례의 전이 단계를 완수하며, 다음 장에서 살펴볼 재통합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4. 재통합(Reincorporation): 정토적 존재로의 재탄생과 방사적 확산

4.1. 진신(眞身) 획득과 연대(蓮臺) 좌정(坐定): 신화적 질서로의 편입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계인 ‘재통합’은 전이기의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지위와 정체성을 부여받아 안정된 구조 속으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이다. 빅터 터너는 이 셋째 단계에서 “여정은 완성된다. 개인

이건 집단이건 의례 대상은 이제 다시 한번 안정된 상태를 찾게 된다. 그 덕분에 명확하게 규정된, 그리고 ‘구조적’ 형태의 권리와 의미를 갖게 되어 특정한 관습적 규범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다.”²⁷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육면비염불서승>에서 이 재통합의 단계는 일상적인 지상(신라 사회)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정도라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질서로 편입되는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된다.²⁸ 법당의 지붕을 파열시키며 수직적 초월의 임계점을 돌파한 육면은 서쪽 교외로 나아가 “해골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해 나타난다”. 여기서 낡은 육신을 버리는 행위는 그녀를 구속했던 세속적 인연과 노비라는 사회적 정체성의 물리적 잔해를 영구히 폐기하는 것이다. 반면 부처의 진실(眞實)한 몸 혹은 법신(法身)을 뜻하는 ‘진신’의 획득은 일체의 세속적 허울을 벗고 도달한 궁극적인 본질로의 재탄생을 의미한다. 리미널 단계에서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백지상태(tabula rasa)²⁹가 되었던 육면은, 마침내 진신이라는 확고한 존재 형식을 부여받음으로써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론적 모호성을 완벽하게 종식시킨다.

진신으로 변모한 육면은 곧이어 연화대에 가부좌를 틀고[坐蓮臺] 천천히 서쪽으로 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蓮臺)라는 공간과 ‘앉는다’는 행위이다. 연대는 부처와 보살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이다. 앞서 분리 단계에서 육면이 보여준 운동이 귀진가와 미타사를 오가는

27 빅터 터너, 장용규 옮김(2020). 『상징의 숲 1』, 지식올만드는지식, p. 209.

2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터너는 의례의 지향점이 “수련자가 하늘나라나 열반처럼 존재의 보다 높은 차원이나 단계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열반 역시 궁극적 재통합임을 논증하였다. 또한 종교적 의례를 분석하며 “전이과정이 영원한 존재방식이 되어 있다”[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63]라고 명시하여 출가나 탁발승의 상태처럼 ‘세속으로 귀환하지 않는 성스러운 질서로의 영구적 편입’ 역시 재통합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29 의례의 전이과정에서 수련자는 ‘백지상태’(tabula rasa)이어야 한다. 그 위에 집단이 가지는 새로운 신분과 관계된 지식과 지혜가 각인되는 것이다.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p. 157.

반복되는 ‘수평적 왕복’이었고, 전이 단계의 운동이 지붕을 뚫고 솟구치는 ‘수직적 파열’이었다면, 연대에 앉는 행위는 이토록 불안정하고 격렬했던 모든 물리적 이동이 종결되고 완벽한 존재론적 안정을 획득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한다.

터너의 관점에서 ‘연대에 앉는다’는 것은 육면이 정토라는 종교적 체계 안에서 확고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고 정토의 세계로 재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귀진가의 노비라는 가장 비천한 지위에서 출발하여 극단적인 신체 무화와 반구조의 문지방을 넘은 그녀가, 마침내 천상계의 연대 위에서 초월적 존재로서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거룩한 질서 속으로 완전히 재통합되는 것이다.

결국 진신 획득과 연대 좌정은 세속의 낡은 구조를 파괴한 육면이 초월적 질서 내부에 자신의 고정된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육면은 개별적 구원과 신화적 세계로의 재통합을 완수한다. 그러나 〈육면비염불서승〉은 여기서 서사를 종결하지 않는다. 작품은 이어서 “방대광명”(放大光明)과 “악성불철공중”(樂聲不撤空中)이라는 감각적 표지, 그리고 버려진 육신과 지붕에 지금까지 남아 전하는 투혈처(透穴處)라는 물리적 흔적을 제시함으로써, 육면의 초월이 단순한 관념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었음을 가시화한다.

4.2. 승화(昇華)의 감각적 증거와 물리적 흔적:

방대광명(放大光明)과 악성불철(樂聲不撤) 중심으로

일반적인 통과의례에서 재통합은 의례 주체가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나 〈육면비염불서승〉은 재통합 이후에도 육면의 초월이 남긴 다양한 표지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작품은 육면의 승화를 설명하면서 “대광명을 내며”, “음악 소리가 공중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또한 육면은 육신을 버렸고[捐骸] 지붕을 뚫고 솟아오른 자리

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전한다[至今有透穴處云].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옥면의 초월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감각적·물질적 증거로 기능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표지 중 대광명과 음악 소리가 방사적(放射的)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앞서 분리 단계에서의 운동은 귀진가와 미타사를 오가는 수평적 이동으로 나타났고, 전이 단계에서는 장궤의 수립과 지봉과 열을 통해 수직적 상승으로 전개되었다. 반면 재통합 단계에서 나타나는 빛과 소리는 특정 방향을 향해 이동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 나가며 주변 공간 전체를 포괄한다. 다시 말해 재통합 단계의 공간 역학은 수평도 수직도 아닌 방사적 확산의 형태를 띤다.

먼저 대광명은 옥면의 존재 변화가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광명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불, 그리고 진리의 현현을 상징하는 대표적 표상이다. 특히 옥면이 지향했던 서방정토의 근본 경전인 『무량수경』에서 광명은 부처의 깨달음과 자비가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매개체로 이해된다.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비구는 48대원 가운데 제12원인 광명무량원(光明無量願)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저의 광명에 한계가 있어 백천억 나유타에 이르는 모든 불국토를 비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³⁰

따라서 옥면이 연대에 앉아 대광명을 발하였다는 서술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그녀가 아미타불의 광명에 상응하는 존재로 재탄생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지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광명이 공

30 “設我得佛，光明有能限量，下至不照，百千億那由他諸佛國者，不取正覺。” 『불설무량수경』 [원문과 번역문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를 참조].

간적으로 방사된다는 사실이다. 광명은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산되며 공간 전체를 포괄한다. 이는 육면의 초월이 더 이상 개인 내부의 사건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임을 의미한다.

공중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천상의 음악은 정토의 현현과 부처의 공덕을 드러내는 대표적 표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아미타경』은 서방정토에 대해 “그 부처의 국토에서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³¹라고 설명하며, 『관무량수경』에서는 “찬란한 광명 속에서 여덟 가지 청량한 바람이 불어 이 악기들을 연주하면, 곧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음(音)을 연설”³²한다고 묘사한다. 따라서 〈육면비염불서승〉의 공중에서 끊기지 않고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단순한 배경적 장식이 아니라, 육면이 도달한 공간이 곧 정토의 세계임을 드러내는 청각적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광명과 음악은 서로 다른 감각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광명이 시각적 증거라면 음악은 청각적 증거이다. 작품은 두 감각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육면의 왕생이 특정 개인의 내면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외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방대 광명”과 “악성불철공중”은 초월의 순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감각적 증거 체계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면비염불서승〉이 제시하는 증거는 감각적 표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작품은 육면이 승화한 이후에도 지상에 남겨진 물질적 흔적을 함께 강조한다. 대표적인 것이 육면의 버려진 육신과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지붕의 구멍 자리이다. 그녀의 버려진 육체는 지상에 남아있지만, 존재의 본질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버려진 육신은 과거의 존재가

31 “彼佛國土，常作天樂”，『불설아미타경』 1권.

32 “從光明出，鼓此樂器，演說苦·空·無常·無我之音”，『불설관무량수불경』 1권.

종결되었음을 증언하는 물질적 흔적이자, 통과 의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유물의 성격을 갖는다. 지붕에 남겨진 투혈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붕 파열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구분하는 경계를 돌파하는 반구조적 사건이었다. 그런데 작품은 그 뚫어진 자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至今有透穴處云]. 이는 초월의 순간이 단순히 지나간 기적이 아니라 실제 공간 속에 흔적으로 각인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남아 전하는 구멍은 구조의 파열이 남긴 공간적 증거인 셈이다.

결국 “방대광명”과 “악성불철공중”이 승화의 순간을 드러내는 감각적 증거라면, 육신과 투혈처는 승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물질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초월의 현전(現前)을 드러낸다면, 후자는 그 사건의 실재성을 보존한다. 작품은 감각적 증거와 물질적 증거를 병치함으로써 육면의 왕생이 단순한 환상이나 내면적 체험이 아니라 실제 세계 안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육면비염불서승〉은 분리의 수평 운동, 전이의 수직 운동, 재통합의 방사 운동이라는 삼중의 공간 역학을 완성한다. 육면은 귀진가와 미타사를 왕복하던 노비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장궤와 지붕 파열을 통해 문지방을 돌파하고, 마침내 광명과 음악, 그리고 남겨진 흔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 변형을 세계 속에 가시화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재통합은 단순한 정토 왕생의 완결이 아니라, 초월의 성취가 감각적·물질적 표지로 방사되어 그 실재성을 증명하는 궁극적 완성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육면비염불서승〉의 향전 기록을 중심으로, 육면의 왕생 과정을 빅터 터너의 통과 의례 이론과 공간 역학의 관점을

결합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 작품이 단순한 불교적 왕생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존재가 초월적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을 공간적 운동의 양상 속에 형상화한 서사임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작품에 나타난 육면의 변모 과정은 통과의례의 세 단계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분리 단계는 세속의 억압적 구조인 귀진가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수평적 운동으로 나타났다. 육면은 세속의 중심인 귀진가와 성역인 미타사를 끊임없이 왕복하고, 마당 복판에서 두 손을 떼어 좌우로 요동치는 수행을 실천한다. 이는 윤회의 닫힌 궤도를 맴도는 원환적 움직임인 동시에, 육체를 속박한 구조의 중력을 끊어내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분리의 예비적 몸부림이다.

둘째, 전이 단계는 중정과 법당이라는 경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운동을 통해 전개된다. 장궤의 수립과 신체 훼손, 그리고 지붕 파열은 기존 정체성의 해체와 새로운 존재로의 이행을 상징한다. 특히 중정은 세속과 성역 사이의 리미널 공간으로 기능하며, 육면은 이 공간에서 기존 사회구조의 분류 체계를 벗어난 리미널 존재로 자리하게 된다.

셋째, 재통합 단계는 진신의 획득과 연대 위에서의 좌정(坐定), 그리고 “방대광명”과 “악성불철공중”으로 표상되는 방사적 확산을 통해 완성된다. 이 과정은 육면이 더 이상 세속적 질서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정토라는 초월적 질서 안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광명과 음악, 그리고 지상에 남겨진 육신과 미타사 법당에 뚫린 구멍은 그러한 변모의 성취를 드러내는 감각적·물질적 표지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육면을 통과의례를 거치며 스스로 존재의 전환을 수행하는 능동적 주체로 조명하였다. 귀진가와 미타사를 오가는 왕복 운동, 신체 훼손, 지붕의 파열과 같은 행위들은 단순한 고행을 넘어 기존 질서와의 단절 및 새로운 존재로의 이행이라는 치열한 의례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육면비염불서승〉은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서사를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파악하여, 존재의 초월 과정을 수평·수직·방사의 공간 역학 속에 탁월하게 형상화한 텍스트이다. 본고의 시도는 이 작품을 의례와 공간, 그리고 존재 변형의 문제를 함께 탐색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자료

- 요진구자(姚秦龜茲)삼장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 최윤옥 번역, 『불설아미타경』 1권,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접속일: 2026. 7. 15.).
- 송(宋) 서역삼장(西域三藏) 강량야사(量良耶舍) 한역, 최윤옥 번역, 『불설관무량수불경』 1권,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접속일: 2026. 7. 15.).

논저

- 구자상(2017), 「『삼국유사』 소재 여성주체설화의 수록배경 논구」, 『동아시아불교문화』 31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김영미(2003), 「高麗 眞覺國師 惠謙의 女性成佛論」, 『梨花史學研究』 30호, 이화사학연구소.
- 김춘호(2022), 「신라 정토신앙의 현신왕생설 재검토: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광덕엄장」·「포천산오비구」를 중심으로」, 『韓國佛敎學』 101호, 한국불교학회.
- 남태순(2009), 「淨土經典의 往生思想과 鄉歌에 나타난 彌陀信仰 연구」, 『정토학연구』 12호, 한국정토학회.
- 빅터 터너, 박근원 옮김(2005),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빅터 터너, 강대훈 옮김(2018),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 황소걸음.
- 빅터 터너, 장용규 옮김(2020), 『상징의 숲 1』, 지식을만드는지식.
- 신종원(2009),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한국전통문화연구』 7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안옥선(1998),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철학연구』 68호, 대한철학회.

- 엘리아데, M. 지음, 이은봉 옮김(2008), 『성과 속』, 한길사.
- 윤재웅(2018), 「서정주 문학에 나타나는 생태 에너지 순환과 윤회전생 사유의 유사성에 대한 고찰」, 『문학과 환경』 17호, 문학과환경학회.
- 이지환(2020),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상보적 서술 양상에 대한 전체론적 해석」, 『한국고전연구』 51호, 한국고전연구학회.
- 이현옥(2003), 「여성성불의 근거와 그 의미」, 『불교학보』 40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이현주(2017),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6호, 한국역사연구회.
- 일연 지음, 박대재·최광식 역주(2014), 『삼국유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1997), 『삼국유사 2』, 솔.
- 일연 지음, 이범교 옮김(2005), 『三國遺事의 綜合的 解釋下』, 민족사.
- 정환국(2006), 「『삼국유사』의 인용자료와 이야기의 중층성: 초기 서사의 구축형태에 주목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3호, 동양한문학회.
- 조경철(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호, 한국역사연구회.
- 조동일(1991),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재판), 집문당.
- 진경환(2018), 「『삼국유사』 「감통」 “옥면비염불서승” 번역의 문제」, 『한국전통문화연구』 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하정룡(2003), 『(교감역주) 삼국유사: 원본의 복원을 위한 삼국유사전』, 시공사.

원고 접수일: 2026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6년 8월 7일, 게재 확정일: 2026년 8월 10일

ABSTRACT

A Study on Rites of Passage and Spatial Dynamics in “Ukmyeonbi yeombulseoseung”

Park, SungHo*

Focusing on the Trajectories of Horizontal,
Vertical, and Radial Movements

This study analyzes “Ukmyeonbi yeombulseoseung (郁面婢念佛西昇)” in *Samguk yusa* by combining Victor Turner’s rites of passage with spatial dynamics (horizontal, vertical, radial). Rather than a simple rebirth tale, it is a profound narrative depicting transcendence from an oppressive social order through a three-stage spatial movement. First, “separation” is embodied by horizontal movements (her commute between secular and sacred spaces, and her side-to-side swaying) symbolizing karmic cycles and her will to break free. Second, “liminality” peaks in a vertical breakthrough. Her extreme penance marks a symbolic death, culminating in her soaring through the temple roof, an anti-structural climax escaping hierarchy. Finally, “reincorporation” occurs as a radial diffusion. Having attained her true body, the expansive light, eternal celestial music, and remaining physical traces validate her transcendence. Ultimately, this text brilliantly spatializes the anthropological ritual process of liberation.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Creative Writing, Dongguk University

Keywords *Ukmyeonbi yeombulseoseung* (郁面婢念佛西昇), Rites of Passage, Liminality, Anti-Structure, Spatial Dynamics, Radial Movement

